

“설 상품 ‘인터넷 양동시장’서 구입하세요”

광주 전통시장들 설명절 맞이 다양한 고객 행사
무등시장, 제수용품 20~40% 할인·무료 배송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전통시장들이 고객 끌기에 밤뛰고 나섰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집에 앉아서도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내세우며 할인점·백화점 등과 맞서고 있다.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마을기업인 ‘양동시장 문화마을’이 나서 이 같은 선진 유통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화마을은 양동시장과 연계해 우수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브랜드 ‘통통’을 붙여 시장 판매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입점해 온라인쇼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을 맞아 배, 사과, 한리봉, 표고버섯, 건어물, 축산물 등 산지에서 직접 고른 고품질 상품을 주문하

면 배송비를 받지 않고 원하는 곳까지 직접 무료 배달해주고 있다.

양동시장 문화마을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품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할인점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남구 무등시장은 특가 판매 행사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일 계획이

다.

정부와 자체적 지원을 받아 ‘문화전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무등시장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상인회 자체적으로 특가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7일 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이 달 특가 판매 행사는 설 대목과 겹쳐 시중가보다 20~40% 저렴하게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공산품 40%, 생선과 채소, 청과는 20~40%, 건어물 15% 싸게 내놓을 예정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무등시장 자체적

으로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은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비롯해 종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관 9곳은 오는 18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기관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장보기 행사도 진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통시장 일대 평일 주정차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허용

전통시장 일대 평일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15일 “지방자치단체와 16일부터 광주의 경우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서방시장 등, 전남은 목포·동부시장, 순천·웃시장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해 임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15일 “지방자치단체와 16일부터 광주의 경우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서방시장 등, 전남은 목포·동부시장, 순천·웃시장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해 임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동자 건강평가 시행하라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자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 고성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며 “금호타이어는 발암물질 위험에 노출된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금호타이어 고성공장에서 18년여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백혈병에 걸린 정모씨에 대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정모씨는 유해물질인 벤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골수 이형성증’이 발생했다고 판단, 지난해 8월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우 한군 담 할인행사 인파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은 13~15일 3일간 매일 500명씩 불고기, 국거리, 장조림용 1등급 한우 2근(600g 2팩)을 사면 1근(600g 1팩)을 덤으로 주는 등 한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노동쟁의 10건 중 6건 지노위서 조정

지난해 광주·전남

분규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의미다.

지난 2009년 48.9%에 그쳤던 조정 성립률은 2010년 54.3%, 지난해 62.0%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54.3%)보다 7.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조정신청 초기단계는 물론 결렬 이후에도 곤질기게 조정을 유도해 노사간 이견을 조율했기 때문이라고 지노위는 분석했다. 또 지난해 도입한 찾아가는 협장 조정 서비스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노위의 적극적인 조정 활동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노사 분규는 4건, 근로손실일 수는 5만 1779일로 전년보다 각각 42.9%, 61.9% 크게 감소했다.

김양현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은 “올해도 적극적인 조정 활동을 통해 파업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79건으로 전년도(69건)보다 13% 증가했다. 특히 청소·용역 등 자영금 사업장에서 조정신청(24건→42건)이 2배 가까이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 | (제476회) |
|------------------|---------------|-----------|
| 당첨 번호 | 2등보너스 숫자 | |
| 9 12 13 15 37 38 | 27 | |
| 등 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6개 숫자 일치 | 3,439,851,469 | 4 |
|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 67,448,069 | 34 |
| 3 5개 숫자 일치 | 1,772,206 | 1,294 |
| 4 4개 숫자 일치 | 50,000 | 68,643 |
| 5 3개 숫자 일치 | 5,000 | 1,203,577 |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 - 북경 티켓 조인 200,000원~ / 무안 - 상해 티켓 조인 215,000원~ (Tax별도)

| | | | |
|--------------|-----------|-----------|-----------|
| 직판 1등 | 중국 | 일본 | 미주 |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 동남아 | 유럽 | 호주 | 호주 |
| 북미 | 북미 | 북미 | 북미 |

예/약/상/담 | 북 구 점 267-8587 | 상 무 점 652-2974 | 수 와 점 574-1300 | 동 구 점 227-8255 | 남 구 점 382-5353 | 철 단 점 233-2627 | 총 장 점 222-9796 | 하 남 점 954-9700 | 광 천 점 350-6226

설 제수용품 국산·수입산 구별법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팀 조언

한우는 밝은 선홍색을 띠며 육질이 촉촉하고 지방이 잘고 고르게 펴져 있지만 수입쇠고기는 견다 싶을 정도로 짙은 색을 띠고 있다.

설을 일주일 앞두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광후)이 설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고객들의 쇼핑을 돋기 위한 수입제수용품 구별법을 16일 밝혔다.

한우, 선홍색·육질 품종·지방 고르게 펴져

고사리는 대가 가늘고 색이 연한 것이 토종



▲쇠고기=한우는 밝은 선홍색을 띠며 육질이 촉촉하고 지방이 잘고 고르게 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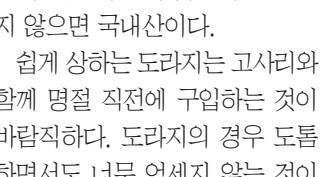
이 나는 것을 상품(上品)으로 치지만 윤이 너무 나면 맛이 떨어진다. 겹질의 윗은 줄무늬가 밀집까지 연결된 것이 맛있다.

굳은 겹질이 알고 만졌을 때 단하고 무거운 것이 과즙이 많으며 표면에 적당한 광택이 있는 것 이 좋다.



▲나물=고사리는 잘 고르지 않으면 수입산을 구입하기 쉽다. 특히 국내에서는 주로 불에 채취되어 지역별로 특산물 형태로 소비돼 귀하다. 고사리는 대가 가늘고 색이 연한 것이 토종이며, 중국산은 대부분 수입하는 수입산은 대가 굽고 육질이 질하며 국내산보다 대가 곱고 매끈하다. 자른 면이 매끈하면 수입산이고 고르지 않으면 국내산이다.

겉으로는 암적색을 떠더라도 자른 부위의 색깔이 밝고 윤기가 있으면 속성이 잘된 것이며, 지방 부위는 유백색에서 연한 노란색 정도로야 정상이다.



▲생선=탄력 있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골라야 한다. 눈이 맑고 투명하여 볼록 뒤에 있어 어여 신선한 것이고, 아가미를 열어 선명한 선홍색을 띠고 단단해 보이는 것이 좋다.

굴비 국내산은 눈이 선명하고 비늘이 고루 분포된 것이 좋고, 빛깔은 회색 바탕의 황금색, 입술은 붉은 주홍색, 머리 상단부에 디아몬드형의 유상돌기가 있다. 수입산은 등이 거뭇하고 뭇진한 유선형이면서도 둘만은 국내산에 비해 자잘한 것이 특징이다.

참조기는 부세와 구별해야 한다. 부세의 겉모양은 참조기와 비슷하지만 몸통이 가늘고 길며, 꼬리부분의 길이도 길고 가늘다.

밤은 구분이 어렵지만 중국산은 대체로 색이 바래있고 농약처리를 한 게 많아 농약 냄새가 나기도 한다. 꽃감은 표면에 흰가루가 적당하면서 꽂지 부위에 겹질이 적은 것이 국산이고, 흰가루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꽂지에 겹질이 많이 붙어 있으면 중국산으로 보아도 좋다.

대추는 꽂지 아래 배꼽 부위가 깊고 들어간 것이 국산이고, 육질과 씨가 쉽게 분리되면서 꽂지 쪽이 매끈한 것은 중국산이다.

사과는 표피가 매끄럽고 광택

이나 대추는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밤은 구분이 어렵지만 중국산은 대체로 색이 바래있고 농약처리를 한 게 많아 농약 냄새가 나기도 한다. 꽃감은 표면에 흰가루가 적당하면서 꽂지 부위에 겹질이 적은 것이 국산이고, 흰가루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꽂지에 겹질이 많이 붙어 있으면 중국산으로 보아도 좋다.

대추는 꽂지 아래 배꼽 부위가 깊고 들어간 것이 국산이고, 육질과 씨가 쉽게 분리되면서 꽂지 쪽이 매끈한 것은 중국산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